

ACC 미래운동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보조도구를 이용해 최대한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AI가 사람의 형상으로 인지하면 빨간 불(왼쪽 첫 번째)이 들어와 탈락이다.

AI 감시 피하고 코끼리와 달리기 미래 운동회, 현대예술로 재해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1관에 펼쳐진 육상경기장. 한 참가자가 자신과 경쟁할 상대를 골랐다. 코끼리였다. 덩치가 큰 동물인 만큼 달리기에서만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상대였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출발 신호와 함께 코끼리가 재빠르게 앞서나갔다. 참가자는 당황했고, 반환점을 돌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봤지만 코끼리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다음 시합을 위해 대기하던 참가자들은 "코끼리가 이렇게 빨라?"라며 놀라워했다. 페퍼저축은행 배구선수 박사랑도 코끼리를 선택했다가 출발부터 차이가 나자 깜짝 놀라며 박장대소했다. 못 이길 상대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앞선 참가자의 사례를 지켜보던 페퍼저축은행 박은서는 동그란 캐릭터를 골랐고, 승리를 거뒀다. ACC 미래운동회 종목인 '타임머신' 참가자들의 사례다.

디지털시대, 스포츠와 놀이문화의 변화를 기술과 예술로 살펴볼 수 있는 디지털 스포츠 축제 ACC 미래운동회가 열리고 있다.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개최된 ACC 미래운동회는 '운동회' 문화를 디지털 기술과 현대 예술로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미래형 놀이와 스포츠 문화를 새롭게 제시하는 이색 전시다.

'운동회'인 만큼 '땅따먹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축구', '공굴리기' 등 친숙한 아날로그 종목들이 등장한다. 대신, 방식이 다르다. 첨단기술이 접목됐다. '땅따먹기'는 헬멧을 쓰고 몸을 움직여 많은 구역을 점령하는 팀이 승리한다. 모션캡처 기기가 사람의 움직임을

참여형 전시 'ACC 미래운동회' 디지털 땅따먹기 등 스포츠 경험 첨단기술 접목 쉽게 즐기는 문화



'스포츠 타임머신'에 참여한 페퍼저축은행 배구선수 박사랑이 코끼리가 앞서자 박장대소하고 있다.

인식해 영역을 표시해준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역시 AI로부터 사람의 형상으로 인식되면 아웃된다. '공굴리기'는 참여자의 움직임 없이 공이 지나가는 구역이 넓을 수록 점수가 부여된다.

색다른 방식의 종목도 있다. '따르릉 전화받으세요'는 이어폰을 통해 들리는 소리만으로 전화를 많이 찾아야 하고, '불나방 대소동'은 특수제작된 채집기로 더 많은 빛을 모으면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스포츠 타임머신'은 벽면에 붙어있는 카드로 상대를 선택해 제한시간인 60초 안에 앞지르면 된다. 운동회에 참여했던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선수(박정아, 박사랑, 박은서, 박수빈)의 기록보다 빠르면 페퍼저축은행

굿즈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전시 콘텐츠 개발은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일본의 대표적 디지털아트 기관 야마구치정보예술센터(YCAM)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로 추진됐다. 또 광주시 동구청이 개발한 지역 맞춤형 건강체조인 '동구랑 건강체조'를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전시 준비운동으로 선보인다.

평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ACC 미래운동회' 본 행사는 총 4회 진행된다.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2일 광주시교육청과 협력해 지역 초등학교생들이 참여한 첫 번째 운동회가 열린 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운동회가 펼쳐진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커톤과 운동회는 오는 9-10일(1차), 23-24일(2차) 각각 진행된다.

참가자는 ACC 누리집(www.acc.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각 행사별 참여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된다. 상세한 정보는 ACC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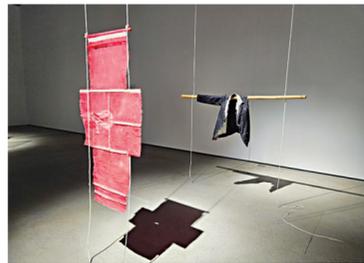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 미래운동회를 통해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 체험과 예술적 영감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남녀노소 모두가 쉽고 친숙하게 예술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CC 미래운동회는 6월 1일까지 열린다.

글·사진=최진화 기자

청년작가 3인이 보여주는 기억과 경계

전남도립미술관 '사라진 문을'
케이윤·이창현·조은솔...25일까지



이창현 작 '양복, 저고리'

청년작가 3인전 '사라진 문을 두드릴때'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케이윤, 이창현, 조은솔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기억의 작용을 통해 경계가 형성되고 해제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예술이 기억을 어떻게 확장하고 새롭게 해석하는지 탐색하며 관객은 자신만의 기억을 환기하고, 익숙한 경계를 넘어선 감각적 경험을 소유하게 된다.

케이윤 작가는 공간과 보이지 않는 경계를 탐구하며, 개인의 경험과 문화가 만나는 지점을 감각적으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전시실을 들어설때 가장 먼저 만나는 '문간방'이 대표적이다. 익숙한 문지방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며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조각과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문지방을 밟으면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에 있는 존재들에게 혼날수 있다"는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착안, 관객이 마치 의식을 치르듯 전시장에 입장하며 경계를 넘는 경험을 하도록 했다.

이창현 작가는 신체와 의복 사이의 관계를 매개로 역사와 정체성을 성찰하며, 누락되거나 지워진 기억의 조각들을 다시 불러낸다. 곁게 접

어 보관된 '치마'를 통해 가정 내 노동의 흔적을 시각적으로 드러냈고 '양복, 저고리'에서는 성별에 따른 의복의 차이,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이 이분화된 식민지 사회의 구조를 반영해 눈길을 끈다.

조은솔 작가는 존재와 생명, 환경이 연결된 유기적 흐름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펼친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반세기 넘게 지역에 뿌리내리며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온 강종열 화백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작가들의 시선을 함께 조명함으로써, 세대와 시대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미술적 성찰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5월 25일까지.

글·사진=최진화 기자

주안미술관 기획전 아트키카7 '툰토피아'

주안미술관(광주시 동구 제봉로 197)이 6월 2일까지 어린이 전시 시리즈 '아트키카(ART KIKKA)'의 일곱 번째 기획전 '툰토피아(Toontopia)'를 개최한다.

아트키카는 '아트 키즈카페(Art Kids Cafe)'의 약자로, 2019년부터 진행해온 주안미술관의 대표 어린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매년 새로운 주제와 지역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구성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다.

2025 아트키카 제7회 기획전 '툰토피아'는 '일상이 만화처럼 특별해지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일상 속 친근한 장면들을 만화적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권순범, 골드원, 이우범, 정배영 총 4명이며, 각자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구성된 '툰' 속 세계를 통해 관객들은 웃고, 공감하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전시는 5월 한 달간 주안미술관에서 전 연령 대상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전시 타이틀 '툰토피아(Toontopia)'는 '툰(Toon)'과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로, 평범한 하루가 만화 속 세계처럼 유쾌하고 따뜻하게 변화되는 순간들을 그려낸다. 이는 아이들



골드원 작 'Siya 농구 소녀'

에게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족에게는 따뜻한 추억과 공감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전시 공간은 설치작품을 활용한 포토존으로 꾸며져 있어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5월 중에는 전시 연계 아트교육키트 배부 및 온·오프라인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인스타그램(@juan_artmuseu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전라남도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FACT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인증제품 : 나이스3A, DE202-AW, DE202-AB 농기계 보조사업 기종, 농협용자, 농기계 보험, 면허증/번호판 없이 탑승가능



나이스 3A
(오토바이 형식 핸들)



DE202-AB
(오토바이 형식 핸들)



DE202-AW
(자동차 형식 핸들)



문의전화 061-352-3010
본사공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내)
제품정보 대풍이브이자동차 를 YouTube / NAVER 에 검색해 주세요!!